

계파 세대결로 가는 민주 원내대표 선거

차기 당권 관련 계파 대리전 앙상

박홍근·박광은 2강 구도 관측

결선 투표 변수... 단일화도 촉각

22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가 계파 간 세력 대결로 전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6월 지방선거와 8월 전당대회와 맞물린 이번 원내대표 선거가 당 주도권과 맞물린 당내 권력 지형도를 보여주는 변수이기 때문이다.

현재 출마 의사를 밝힌 주자는 4선 안규백, 3선 김경협 박광은 박홍근 이원욱 의원(선수 및 가나다 순) 등으로 5파전이다.

이들 후보가 출사표 전면에 내세운 메시지는 한결같다. 대선 패배의 충격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일단 당내 단합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5월부터 '거야(巨野)'가 되는 민주당의 원내 사령탑으로서 정부·여당을 효과적으로 견제하는 한편 검찰·언론 개혁, 민생개혁 입법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다짐 역시 공통분모다.

주자 간 정책이나 향후 대외 관계 설정 등을 놓고 차별성이 부각되지 않으면서 이번 선거는 결국 인물론보다는 계파 구도전으로 치러질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 고위 관계자는 이날 "각 계파 중에 어디가 대선 이후 당을 가장 안정화할 수 있는 세력이나를 가리는 싸움"이라며 "원내대표 선거는 차기 당권 구도와도 맞물려 있다"고 강조했다.

계파색을 따져보면 일단 박광은 의원은 이낙연 전 대표의 최측근 인사로 분류된다. 이낙연 전 대표 체제에서 사무총장을 지냈으며 지난해 대선 경선 당시 '이낙연 캠프' 총괄본부장을 맡았다.

박홍근 의원은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측 인사로 불린다.

오랜 기간 '박원순계'로 묶였으나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비서실장을 맡으면서 이 전 지사의 '신(新) 측근'이 됐다.

안규백-이원욱 의원은 정세균계로 기반을 같이하고 있고, 김경협 의원은 이해찬계 친문으로 분류된다.

당내 다수 인사는 이번 선거가 결국 박홍근 대 박광은, 즉 이재명계 대 이낙연계의 2파전으로 흐

를 것으로 내다본다.

당 관계자는 "대선 경선 과정을 거치면서 두 세력이 당내 최대 그룹이 됐다"며 "박홍근 박광은이 2강을 형성하고 안규백, 이원욱, 김경협이 뒤를 쫓는 양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차원에서 일각에서는 같은 정세균계인 안규백 이원욱 의원이 단일화를 할 가능성이 나온다. 아무래도 세 대결에서 밀리는 만큼 후보 단일화로 2강 내지는 3강 체제를 형성, 막판 뒤집기를 노리겠다는 것이다.

나아가 1차 투표(3분의 2 이상 득표자 선출)와 2차 투표(과반 득표자 선출)에서도 승부가 나지 않을 경우 정세균계의 표심이 막판 최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2차 투표 1·2등을 대상으로 결선 투표가 진행되는데 당내 세력 구도상 어느 한 진영도 단독 과반은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초선 의원은 "결선투표에 들어가면 매직넘버는 87명이 된다. 이럴 경우 이재명계도 이낙연계도 자신들 세력만 가지고는 승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민주당 광주시당

"대선기여 포상 추천 않기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대선 기여 특별 포상' 대상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22일 밝혔다.

시당은 공정성 우려에 대한 지역 여론을 감안,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대선 기여도를 평가해 시·도당위원장이 포상 대상자를 추천하도록 했다. 전국적으로 400명 규모로 시·도당별 광역·기초의원에 비해해 광주는 10명, 전남은 40명이다.

추천 대상자에는 여성 30%, 청년 10%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 이를 두고 민주당 공천에서 가산점을 기대한 출마 예정자들의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고 시·도당위원장의 재량에어서 공정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반면 전남도당은 조만간 운영위원회를 열어 포상 대상 지방의원 40명의 명단을 확정된 뒤 중앙당에 제출하기로 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대통령실 이전 국방부 입장은? 서욱 국방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국방부 등 청사 이전 관련 긴급 현안보고가 진행됐다. /연합뉴스

"주중에 만날 수 있다"...문 대통령-윤 당선인 소통 물꼬 트이나

靑 "용산 이전 반대 아니다"

당선인측 대응적 협력 촉구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놓고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측이 목소리를 낮추고 추가 협의 가능성을 열어 놓으면서 소통의 물꼬가 트일 것인듯 주목된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2일 "청와대가 새 정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안보공백이 우려되는 지점이 있

으니 이에 대해 협의를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은 이날 TBS 라디오와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잇달아 출연, "5월 10일까지 집무실 이전 작업이 대체로는 잘 될 수 있다고 보지만, 안보공백 우려는 꼭 해결해야 하니 머리를 맞대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런 문제(집무실 이전에 따른 안보공백 우려 등) 때문에 더욱더 두 분의 회동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라고도 했다. 박 수석은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주중에 만날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는 "당연히 그렇게 돼야 한다"며 "그렇게 되기

를 바라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 측도 날카로운 반응을 거두고 청와대 측에 대응적인 협력을 촉구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직인사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청와대와의 실무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저희가 없는 말을 드리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나 행정안전부 분들과 절차를 상의하고 합당한 결과가 올라가는 안까지 상호 조율과 소통이 이뤄졌다고 들었다"고 답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6·1 지방선거 라운지

강신기 전 광주시 기획조정실장 동구청장 출마 선언

강신기 전 광주시기획조정실장은 22일 "위기의 동구를 바꾸기 위해 지방과 중앙행정을 두루 경험한 정직한 행정전문가가 필요하다"면서 광주 동구청장 출마를 선언했다.

강 전 실장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와 긴밀히 협조하고 지방분권시대 지방이 서로 경쟁하는 구도속에서 중앙부처와 연계해 지역발전을 이뤄야겠다는 일념으로 동구청장



선거에 나서게 됐다"고 출마 배경을 밝혔다.

그는 "일도 해본 사람이 잘한다. 20만 동구 시대를 열겠다"면서 "민주당도 변화하고 동구도 변화해야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윤난실 전 청와대 비서관 광산구청장 출마 선언

윤난실 전 청와대 제도개혁비서관이 22일 광주시 광산구청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윤 전 비서관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산구가 일궈온 지난 12년의 혁신을 이어감과 동시에 사람 중심의 지속 가능한 환경·사회·협력(ESG)을 구정의 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광산·나주·함평·장성 100만 메가시



티 광산 ▲금호타이어부지를 호남권 비즈니스 허브 조성 ▲소상공인 자영업자 청년 중심 로컬경제를 위한 광산경제문화재단 설립 ▲메타버스·AI산업 중심의 일자리 창출 ▲광산 도시농업 6차 산업화 구현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최용선 전 靑행정관, 나주시장 선거 예비후보 등록

문재인정부 청와대에서 4년간 국정 경험을 쌓은 최용선 전 선임행정관이 6·1 지방선거 나주시장 선거에 도전한다. 최 전 선임행정관은 지난 21일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이재명 후보가 이루지 못한 '에너지고속도로' 건설의 꿈을 나주에서 살려가겠다"며 "도로 등 공공부지를 활용해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을 40%로 올리고 나주를 탄소중립 대표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 전 선임행정관은 "더불어민주당의 미래까지



와 정강·정책을 혁신적으로 현장에 접목해 기초자치단체의 모범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나주 성북출신인 그는 문재인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 선임행정관, 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고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열린캠프 인재영입 실무단장을 맡았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15만 창조도시 나주"...김병주 나주시장 출마 선언

순천부시장을 지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나주시장 선거 예비후보는 22일 "행정을 바로 세우고, 먹고사는 문제인 '경제' 살리기에 힘을 써 임기 내 나주를 인구 15만(현 12만)의 미래형 창조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남평 출신인 김 예비후보는 이날 나주 정수루에서 출마 선언을 하고, 농민공익수당 인상(60→100만원), 서울대형병원 나주 분원 및 도립의료원 유치, 관광객 1000만명 도시 건설,



100원 택시 확대, 초강력레저시설 및 연구소기업 유치, 신혼부부 아파트 주거비 지원, 노인일자리 확대 등 주요 공약을 발표했다. 김 예비후보는 산포면장, 전남도 일자리 정책본부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등을 지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새로운 담양 건설"...이병노 담양군수 출마 선언

이병노 전 담양군 자치혁신국장은 22일 "새로운 담양을 만들기 위해 한 알의 밀알이 되고자 한다"면서 담양군수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전 국장은 이날 담빛농업관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40년 담양군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쌓은 행정 경험을 토대로 군정을 제대로 이끌 수 있다"면서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군민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따뜻하게 포용하는 일에 앞장서



는 군수가 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잘못된 관행을 과감하게 혁신하는 군수가 되겠다"며 "인사권, 인허가권 등의 권한을 공정과 상식에 입각해서 행사하고, 예산집행도 하향식에서 상향식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3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선 수 금 없음
출장비용 없음

(채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010-2860-4700
직통전화 062)521-4109

전원주택 개발부지

담양읍, 다가구, 사옥등 다용도 부지, 임야, 매매

- 1 전원주택 개발부지 건물 후면 선산 명지**
담양읍 금성, 덕성리 덕진산 아래 광주간 20분 4차선 신설도로 근접
· 2층 건물 철근 콘크리트조 적벽돌외벽 스타라브즘 129㎡(39평)
· 토지 8,098㎡(2,452평) 50여년생 명품소나무 8주와 정원수 및 과수 380여주 포함
· 경관 수려한 숲속 전원주택 10여채 조성 가능
· 2층 기존 건물 후면 선산 명지 조성 가능 매 7억원
- 2 전원 주택용 부지와 사채된 조경수 20여년생 8종 1천5백주 포함**
· 순창, 금곡, 방축리 담양읍 경계 신설 4차선 I.C 근접
광주간 20분 계획관리지역 전 9,190㎡(2,780평)
· 느티나무, 소나무 등 20여년생 외 7종 1천5백여주 조경수 포함
· 전원주택단지, 물치장, 펜션, 가든, 커피숍 다목적 사용부지
· 구내포장 배수로 시설 남향에 아미산 바라본 경관수려 ㎡ 9만원
- 3 다가구, 고급주택, 사옥 등 다용도 부지(주거 2종)**
· 담양읍 양각리 강변 유희마을 조성지 근접
광주간 15분 공용주차장 3면도로접 남향 교통요지 시장인접
다가구 사옥 다용도 부지 4,220㎡(1,276평) 매 ㎡ 9십만원
- 4 임야내 휴양림 30여년생 편백 1만여주 식재 마을변방**
(1) 영암읍 학송리 계획관리지역, 취락마을 용지 포함. 현 국도 4차선 근접 2023년 고속도로 완공시 톨게이트 300m 지점
광주간 25분 소요, 임야 76,000㎡(22,990평) 구내울달생
전원주택지 귀농·귀촌·휴양자 적합 매 ㎡ 6천원
(2) 담양, 월산면 중월리 광주간 25분 임야 62,810㎡(19,000평)
농림지역 농로접 적송다수자생 생약재배 캠핑장, 휴양지
농기주택 가능 매 ㎡ 5천원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561-5(삼성홈플러스 길 건너편 동광주빌딩)
대영공인중개사 대표 김용주 010-3454-2389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잠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한미쇼핑사거리)